

출장보고서

기업생태계연구본부 기업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 양주영

I. 출장 개요

- (1) 출 장 자: 조재한 연구위원, 양주영 부연구위원
- (2) 출장지역: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 (3) 출장기간: 2017. 11. 5~ 2017. 11. 11
- (4) 출장목적
 - OECD 산업분석작업반회의(Working Party on Industry Analysis: WPIA) 및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Committee on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IIE) 공동 워크숍 참석
 - 듀크대와의 공동연구 해외활용 방안 및 OECD와의 추후 공동작업 논의
- (5) 출장일정 및 방문기관

일자	일정 및 방문기관	주요 내용
11월 5일 (일)	- 인천 출발, 파리 도착	
11월 6일 (월)	- 산업분석작업반 회의 참석	- Firm dynamics and Productivity - Measuring employment dynamics at regional and metropolitan level
11월 7일 (화)	- 산업분석작업반 회의 참석 -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공동워크숍 참석	- Taxonomy of digital sectors - The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for productivity, competition, and market openness
11월 8일 (수)	-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Jobs and skills in the digital

	공동워크샵 참석	transformation - GVC Centrality and Productivity
11월 9일 (목)	-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공동워크샵 참석	- Firm size and Wage differential - OECD Strategy for SMEs
11월 10일 (금)	- 파리 출발	
11월 11일 (토)	- 인천 도착	

II. 주요내용

1. 산업분석작업반회의 (Meeting of the Working Party on Industry Analysis, WPIA) 및 산업분석작업반과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CIIE) 공동 워크숍

□ 회의 내용

- 2017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된 OECD 산업분석 작업반 회의와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의 공동컨퍼런스는 최근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의 방법론 측면과 연구진행에 대한 방향이 논의됨.
-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역동성(Dynamics)와 생산성, 일자리 창출, 수출, 투자 등에 대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과 해당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방법 및 연구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 범위원회 프로젝트인 “Going to Digital” 하에서 디지털전환 속에 산업 및 기업의 변화에 대한 연구 활발
- 또한 기업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무형자산(Intangible capital)과 관련된 지식기반자본의 중요성과 해당 자본의 기업활동에 관한 효과가 다방면으로 분석이 진행중
- 현재 OECD는 기업데이터를 기초로 한 국가별·산업별분석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진행중
- OECD는 실증적 분석을 위하여 데이터의 신뢰도 부분을 상승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관찰 및 평가

- 글로벌산업작업반(Working Party on Globalisation of Industry, WPGI)이 WPIA를 포함한 CIIE 산하의 다른 작업반 등과 통합된다는 점에서 글로벌이슈가 중요한 한국의 경우 해당 논의 부문을 WPIA 등의 작업반을 통하여 대응할 필요
- 디지털전환, 글로벌가치사슬 변화 등에서의 일자리 창출 등 실제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일자리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국 또한 연구결과에 관심 필요
- 현재 OECD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구축작업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음.
- 해당 DynEmp와 MultiProd 프로그램 담당자, 주OECD대사관 그리고 산업연구원은 한국 데이터 제공 및 연구방향에 대한 협력을 논의

2. 131회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 회의(131st Session of the Committee on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CIIE)

□ 회의 내용

- 2017년 11월 8일과 9일 양일간에 개최된 산업혁신기업가정신위원회는 최근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단위의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분석의 결과와 그에 따른 합의가 논의됨.
-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기업의 역동성(Dynamics)와 생산성, 일자리 창출, 수출, 투자 등에 대한 분석 결과가 소개되었으며 향후 정책적 합의 도출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됨.
- 디지털화로 인한 국내 일자리 등의 이슈 외에도 글로벌가치사슬의 변화에 대한 최근 연구도 소개되고 정책적 합의를 논의함.

- 또한 2018년도 멕시코에서 개최될 중소기업 장관회의 준비와 관련된 OECD의 준비과정이 소개
- 2019-2020년에 진행될 이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광범위한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OECD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관한 이슈와 포용적 성장에 관한 이슈가 보다 확대되어 논의 예정

□ 관찰 및 평가

- OECD의 정책논의가 데이터를 기반으로한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석 및 데이터 작업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하지만 상대적으로 분석 이후의 실증적인 정책 논의 부문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일부 국가의 경우도 각 국가의 정책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함의 도출이 요청되었으며, 국가별 케이스 스터디가 추가되어야한다고 제언
- 2018년 OECD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결과문 결정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 선언문 형태를 지지하였으나 국가별로 의견이 갈렸다는 점에서 향후 면밀한 관찰이 필요
- 동 회의와 관련하여 컨퍼런스 많은 세션의 좌장, 발표자, 토론자가 결정되지 않은바 한국 측의 참여 필요
- 2019-2020년에 예산과 관련하여 진행될 이슈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이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국내 철강, 조선 등의 산업이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관찰과 한국 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 중소기업관련 이슈와 포용적 성장에 대한 범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분석에 있어서 기업별 레벨의 미시데이터가 강조되나 한국의 경우 데이터 제공을 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논의에서 빠져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

3. OECD 산업분석 동향 및 듀크-산업연구원 공동연구 활용방안

- 산업연구원과 DUKE 대학의 공동연구에 발표자로 참여한 Nick Johnstone 박사를 통하여 해당 원고자료 활용방안 문의
 - 해당 원고 초고를 OECD와 공유한 상황이며 CIIE 및 기타 커미티를 통하여 활용방안 강구
 - 출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OECD가 가지고 있는 국제 출판사의 네트워크 정보 공유
- OECD가 최근 기업단위 미시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국가별 데이터 작업에서 데이터 협조 요청
 - 현재 유럽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미시데이터 구축 작업인 DynEmp, MultiProd 진행
 - 해당 연구를 위하여 국가별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이 절실한 상황
 - 현재 데이터 작업과 관련하여 한국 측의 KDI, 통계청 및 몇몇 학자에게 OECD가 컨택 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
 - 현재 OECD에서 본 작업을 지역단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연

구를 진행하는 산업연구원이 기여가능

- 주OECD 한국 대사관과 협력을 통하여 OECD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에 협조와 동시에 산업연구원과의 공동연구 방안 논의
- 2월에 개최될 4차 산업혁명 산업연구원-ITIF 컨퍼런스 관련 OECD 참여 논의
 - 현재 OECD에서 범위원회 프로젝트인 Going Digital 진행중
 - 해당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해당 컨퍼런스 참여 방안 타진
 - 향후 산업연구원-ITIF-OECD 공동 컨퍼런스 확장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타진 논의